

劇團「釜山」레파토리시스템  
창단 30주년기념 제 99회 정기공연

무대지원사업선정작  
사랑티켓참가작

# 느낌, 극락같은



2008. 10. 14(화) ~ 15(수)

오후 4시 30분 / 8시

시민회관 소극장

| 후원 | BBS부산불교방송국, 범어사

| 협찬 |

**영광드서**



연출의 글

「느낌, 극락같은」 공연을 준비하며...

극락같은 느낌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흔히 우린 "극락이 따로 없네!" 란 말을 쓰면서도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꼭 짚어 얘기할 순 없다.

불가에서 말하는 샛된 망상을 모두 내려놓은 상태, 작품에서 「함이정」이 말하는 "내 마음이 극락을 느끼면 극락문이 열리고 지옥을 느끼면 지옥문이 열려요! 난 서연 오빠를 만나면 극락을 느낄거예요!" "...여기 저기 헤맬때는 길과 마음이 따로따로 나뉘지더니만, 이제 멈춰서서 기다리는 이 길은 내 마음과 하나로 이어졌다. ...가만히 눈을 감고 있어도 나는 느껴. 이길을 지나가는 모든 움직임에 예민하고 섬세하게..., 사람들이 지나간다. 가축들이 지나가고, 아주 조그만 벌레들도 지나가... 다가온다...서연오빠가 돌부처를 만들며 다가온다..." 아마, 그런 기분이 아닐까 짐작할 뿐이다.

여러 차례의 검증을 거친 작품, 희곡이 문학적이어야 하느냐, 공연적이어야 하느냐의 논란이 분분했고, 희곡이 중한가 연출이 중한가로 평단의 논쟁이 뜨거웠던 작품을 접하면 우선 연출은 곤혹스럽다. 그러면서 묘하게 끌리는 작품이 있다. 그것이 "느낌, 극락같은"이다. 작품 속에서 「조승인」은 말한다. "아버지의 불상 때문이에요, 불상 형태가 너무 완벽했거든요. 아주 잘생긴 미인한테는 말 걸기가 쉽지 않듯이, 너무 잘 만든 부처님께는 마음 통하기가 어려운 거죠. 아무리 절을 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만 견디다 못해 도망가셨어요."

그렇다! 너무 잘 생긴 작품은 연출하기 부담스럽다. 흔들거나, 뒤집어 새롭게 연출해 볼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에 매력을 느끼는 것은 이 작품이야말로 우리네 인생을 이야기하고, 우리 연극의 이상과 현실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형태가 완벽해야 부처의 마음이 머무르게 될지, 부처의 마음을 알고서야 완벽한 형태를 만들수 있는지는 우리 모두의 화두로 남겨두고 오늘은 또 달려 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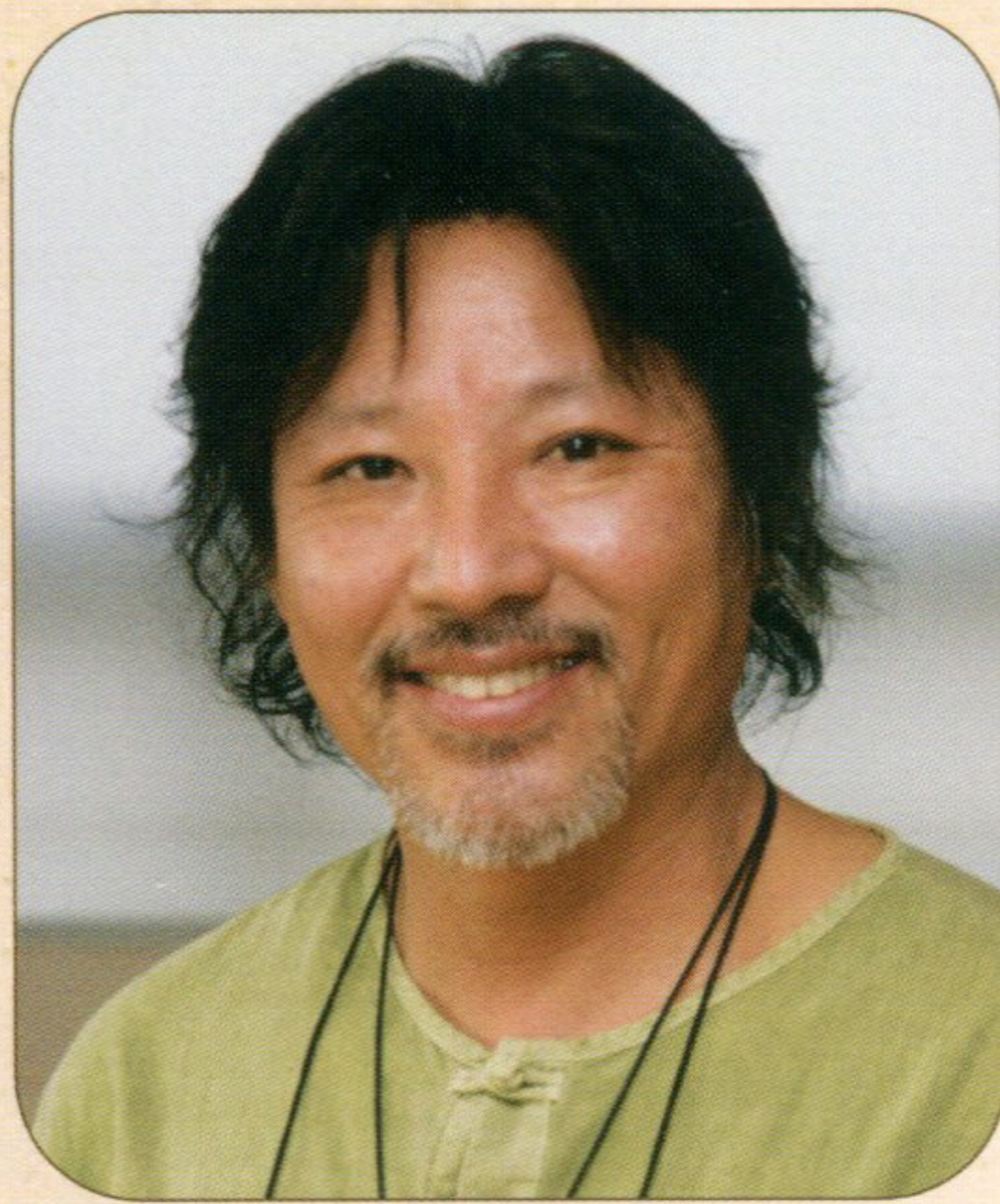
귀한 작품주신 이강백 교수님께 우선 감사드리고, 안과 밖에서 극단 30년을 회고해 주신 장세중, 김문홍 두 선생님 그리고, 음으로 양으로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그리고 아직도 곁에 있는 듯한 느낌인 고 김용국씨, 고 홍승모에게도.



연출 이기원



C A S T



함묘진  
김상훈



서연  
유상훈



함이정  
김혜정



동연  
박현형



조승인  
강태욱



코 러 스



코러스  
손 동 일



코러스  
신 원 준



코러스  
권 미 영



코러스  
이 민 선



코러스  
장 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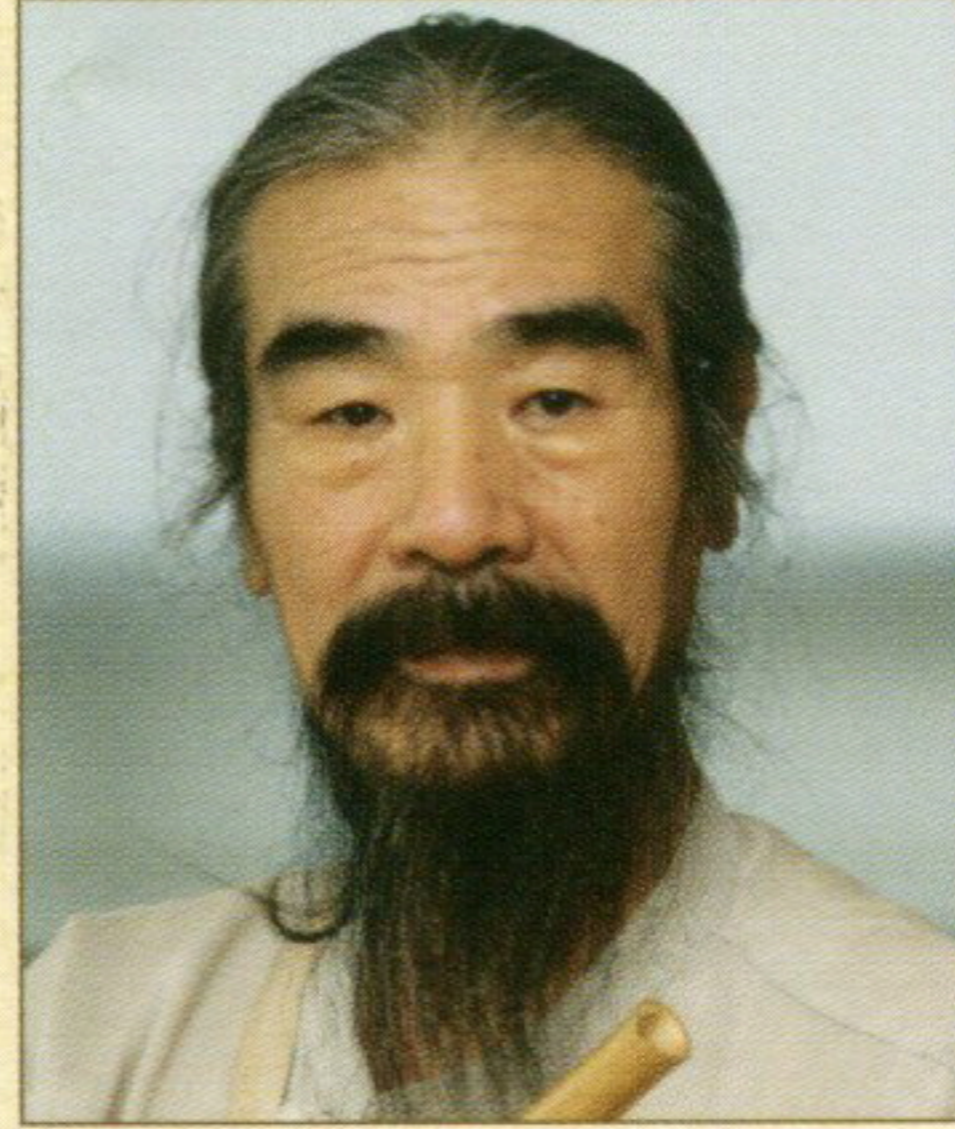
S T A F F



기획  
이은경



기획  
조수현



음악감독  
김영민  
작곡  
김성겸



안무  
홍충민



무대디자인  
백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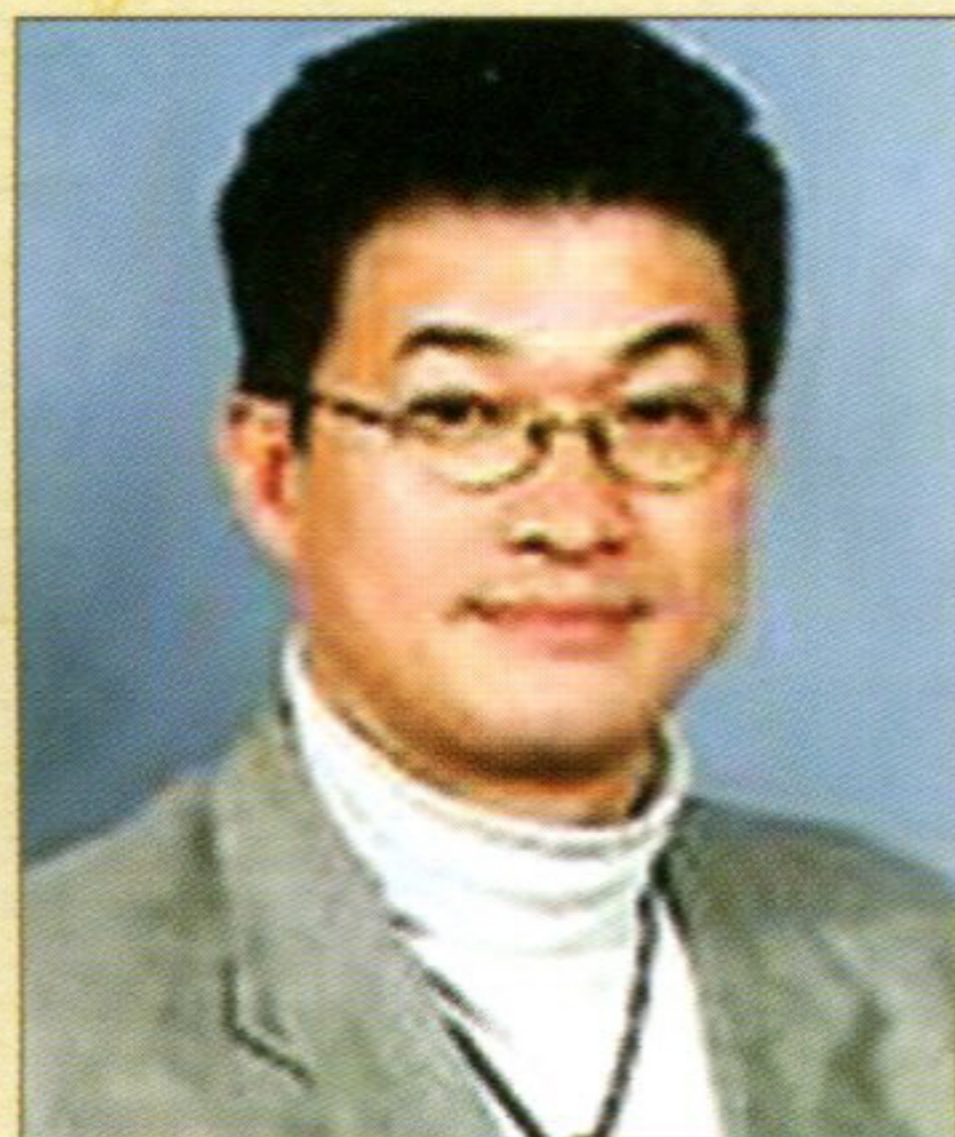
무대어시스트  
임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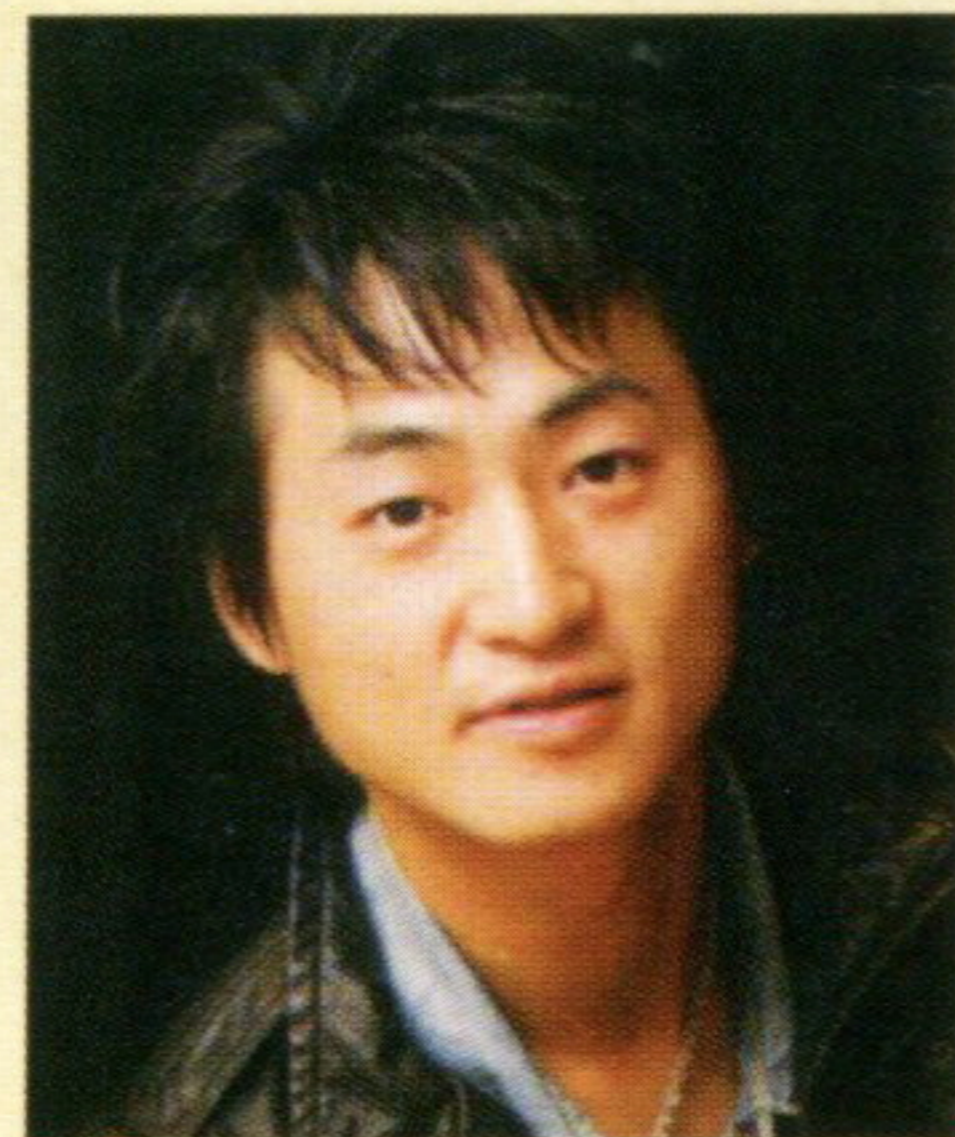
의상  
민순라



분장  
박은주  
최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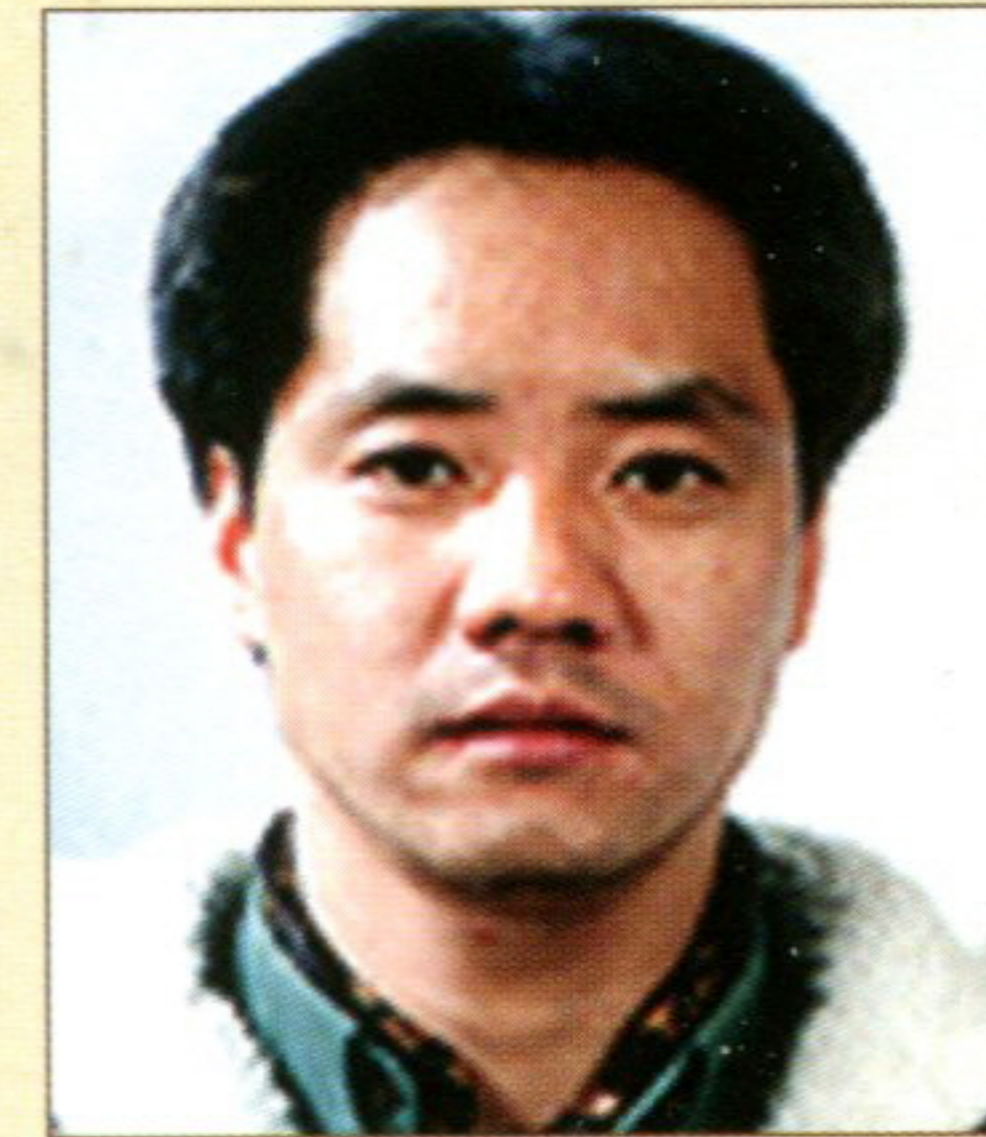
무대감독  
조용황



조명디자인  
김철현  
조명오퍼레이터  
이헌무



음향  
이영희



진행  
김동범